박태원 교수의 ⑫

불교로 보는 신생

고난이라는 도반

변화 감당해낼 '용량 키우기' 필요

신지식인이니 뭐니 하면서 너무 호들갑스럽게 띄운다 싶더니만 기어코 사단이 나도 크게 났다. 시대의 총아로 각광받던 어느 벤처 기업가의 추태와 몰락에 따른 파문이 어지럽게 번져 가며 이 사회의 치부를 또 한번 헤집어 놓는다. 좌우지간 돈 되는 지식만 지니면 정보지식 사회의 주역이요 한국의 희망인 신지식인이라며 추켜세우던 경박한 소견머리들도 이번 사태의 조연 배우였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격조와 정신적 품위를 간과한 국가 운영은 어차피 한탕 하고 튀는 장돌뱅이판 수준을 넘지 못하는 법. 화려한 조명과는 멀리 떨어져 묵묵히 고독과 벗하며, 실로 오랫동안 한 켜 한 켜 쌓아 올리는 문화 능력의 성숙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이 시대 국가 운영의 주체들은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폭죽 쏘고, 가수들 무대 올려 한 바탕 신바람 올리고, 무슨 무슨 국제 박람회니 문화행사니 하는 겉껍질 화려한 일회성 이벤트가 문화의 이름으로 번성한다. 문화력의 축적이나 향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잔치를 큰 돈 들여 벌리며 '이제 한민족은 신문명의 주역' 운운하며 허풍을 떠니, 이 견디기 어려운 '문화의 가벼움'과 이리 저리 터지는 사회 병리 현상들은 속 깊이 연결되어 있을 터.

인생은 변한다. 그런데 변화의 속도야 조금 빠르거나 늦거나 간에 그 내용이 큰 차이가 없으면, 기존의 능력으로도 별 무리 없이 그 변화를 감당해 낸다. 문제는 변화의 내용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때이다. 이러한 변화를 감당해 내려면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도 획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변화를 담아내는 용량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소위 통과 의례이다. 통과 의례는 혹독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일부러 부과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신의 주름살'을 만들어 준다.

돈벌이든 권력이든 학문이든 수행이든 간에, 모든 영역에는 통과 의례에 해당하는 '용량 키우기'의 우여곡절이 있다. 급작스럽거나 획기적인 변화를 감당해 내려면 이전의 용량으로는 안된다. 변화의 폭이나 내용이 큰 만큼이나 담아내는 용량의 크기나 성능도 커져야 넘치거나 깨지지 않는다. 그릇 용량과 성능은 예전 그대로인데 담아낼 양과 질은 크게 달라졌을 때, 그 변화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큰 돈 담아낼 용량이 아닌데 돈 복 밀어닥치면, 그 재물 복은 삶을 요절내는 돈벼락이다. 돈 되는 신지식 운운하려면, 큰 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는 적절한 '문화적 통과 의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그런 문화적 통과 의례들이 적절히 가동하지 못하는 한, 권력과 재력을 둘러싼 수준 이하의 어처구니없는 작태들은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인간은 생물로서 태어난다. 그러나 인간만이 생물학적 탄생의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탄생'을 시도할 수 있다. 무수한 과거생으로부터 길들어 온 관행적 삶의 차원을 넘어서 버리는 파천황(破天荒)의 거듭 남을 성취할 수 있다. 탐·진·치의 주체에서 지혜와 자비, 깨달음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 질적 도약은 당연히 그에 걸맞는 특별한 통과 의례를 요구한다. 이 새로운 탄생은 차원 변화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변화를 감당해 낼 수 있는 '깊게 패인 정신의 주름살'을 요구한다. 새로운 탄생에 성공한 역대의 영웅들이 한결같이 특별한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이다. 지금 남다른 고난과 역경에 처했다면, 그 상황을 특별한 통과 의례로 삼아 버려라. 그럴 때 고난은 최고의 도반이 되리.

이 칼럼을 읽고 있다는 '정지태'라는 수인(囚人) 한 분이 수준 높은 구도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 주셨다. 한때 전도사로서의 변신도 시도했었다는 그 분은, 20년 수인 생활 끝에 지금 부처님 법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진행 중이라 하신다. 안타깝게도 충분한 불서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니,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연이 생겼으면 좋겠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진실한 참선은 염불심이 없으면 안될 정도로 염불은 불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수행방편이다. 건봉사 전국염불만일회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불자들.

마음깊이 명호불러야 삼매

참불자의 길 — 염불수행②-올바른 염불

"근기 낮은 수행법 오해"
"기복보다는 정토 염원"

염불(念佛)은 과연 근기가 낮은 불자들만이 하는 수행법인가? 또 재를 지낼 때 주로 하는 진언에 불과한가?

전국염불만일회 김재일 회장은 "진실한 참선도 바로 염불심이 없으면 안될 정도로 염불도 참선만큼 중요한 수행방편"이라며 "입으로 한다고 가볍게 여겨 염불수행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걸로 여기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이야기 한다. 또 김 회장은 "염불은 절에서 재를 올리거나 사람이 죽으면 외우는 단순한 진언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불자들이 의외로 많다"며 "기도 할 때 현세의 기복에만 빠져 극락정토를 염원하는 내세의 아미타 염불신앙을 소홀히 하는 것은 수행에 임하는 불자로서 고쳐야 할 병폐"라고 지적한다.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도 염불할 때의 마음 가짐에 따라 염불은 자력신앙도 되고, 타력신앙도 될 수 있다며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생각하며 염불에 임해야 수행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요즘 불자들은 염불의 정확한 의미를 대수롭게 않게 여기며 오로지 현재의 기복을 위해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올바른 염불 태도가 아니라고 스님은 충고한다.

법산 스님은 또 "의식과 재를 지낼 때 하는 의식 염불은 스님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염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며 "의식 염불은 단순히 신앙에 대한 의식일뿐 승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가 불자들도 배우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강조한다.

염불 수행을 오래한 수행자들은 공통적으로 염불이 절에서만 하는 수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고정 관념이며 일할 때나 수행정진하거나 쉬고 있을 때도 염불행은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지 않는다면 도를 닦는데 유익함이 없다는 염불수행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무아의 경지에 들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염불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칭명념(稱名念), 관상념(觀像念), 관상념(觀相念), 실상념(實相念) 등 네가지가 있다. 이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염불이다. 명호를 부른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인 '아미타불'의 대서원을 의심없이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뜻은 광명의 세계인 정토를 간절히 염원하는 발원을 담고 있다.

염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미타불'의 의미를 잊지 않고 염불해야 자신이 가는 길이 분명해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장보살'이든 '관세음보살'이든 그 본래의 의미만 되새긴다면 어떤 명호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점을 특히 강조한 법산 스님은 "처음에는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명호를 부르는 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익숙해 지면 자신의 힘과 음량에 맞도록 편안한 음성으로 염불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또 스님은 "칭명염불이라고 해서 반드시 입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입으로 부르는 구념(口念)이 깊어져 순일하게 돼 마음속으로 심념(心念)이 이루어지는 경지가 바로 염불삼매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일본 최고 수준…중국 최근들어 활발

㉞선어록의 연구(2)

송인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선어록언어

일본의 선종언어 연구 수준은 선종사상 연구와 더불어 세계 최고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중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은 늦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매우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겸창 실정(鎌倉室町) 시기, 즉 12~14세기에 중국으로부터 선종이 전파되어, 17세기 이후부터 언어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동양영조(東陽英朝)의 〈증보두서선림구집(增補頭書禪林句集, 1688)〉은 선어를 집대성한 일본 최초의 사전이다. 선어록 언어 연구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에 임제종(臨濟宗) 승려인 무저도충(無著道忠:1653~1745)이 있는데, 그는 평생 무려 255부 873권의 불교 관련 저서를 남겼으며, 다수가 선어록의 어휘를 분석한 것으로, 예를 들면 〈선림상기전(禪林象器箋)〉 〈선림방어(禪林方語)〉 〈갈등어전(葛藤語箋)〉 〈지나속어(支那俗語)〉 〈허당화상어록여경(虛堂和尙語錄犂耕)〉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인데, 안타깝게도 그의 저서는 거의가 수고(手稿)로, 극히 일부가 전사(轉寫)되어 유통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야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의 것을 분야별로 간략히 소개한다면, 선어록의 번역·역주로는 〈선의어록(禪の語錄)〉(축마서방:筑摩書房)이 가장 믿을 만하다. 선학사전으로는 구택대학(駒澤大學)이 1985년 편찬한 〈선학대사전:禪學大辭典〉(대수관서점:大修館書店)이 가장 많은 연구자가 참고하는 것으로, 무려 3만2천여 항목을 해설하고 있는 종합 사전이다. 어록 및 공안집에 출현하는 선어의 출전까지도 밝히고 있는 역작이다. 선어사전으로는 고하영언(古夏英彥)이 1991년 편찬한 〈선어사전:禪語辭典〉이 가장 믿을 만하다. 그밖에 선어록 어법을 연구하는 학자로는 태전진부(太田辰夫) 지촌양지(志村良知) 등이 있다.

이 밖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도(京都) 소재의 화원대학(花園大學) 국제선학연구소(國際禪學硏究所)로, 세계 최고의 선학 연구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주로 선종 문헌의 정리, 출판 및 언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소위 '선종어록 연구반'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데, 이는 우리의 윤독회와 비슷하나, 여러 분야의 전공자가 함께 하나의 문헌을 선정하여 철저히 연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송대(宋代)의 승려인 목암선경(睦庵善卿)이 1108년에 편집한 〈조정사원:祖庭事苑〉이 간행되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선어사전이나,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기간에는 특기할만한 사항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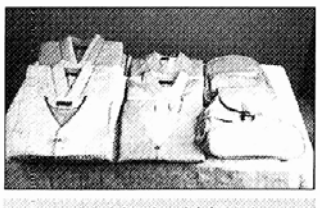
중국 대륙의 경우, 문화대혁명(1966~1976)이 종료된 1980년대 초부터 선학 연구와 더불어 언어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어록 선집(選集) 가운데 학술적으로 참고 가치가 있는 것은 원빈(袁賓)의 〈중국선종어록대관:中國禪宗語錄大觀〉 〈선어역주:禪語譯註〉 등이 있으며, 선종 사전으로는 역시 원빈의 〈선종사전:禪宗詞典〉이 있는데, 이는 각종 어휘 등 모두 6,400여 항목을 수록한 역작이다. 선어록 언어 개론서로는 역시 원빈의 〈선종 언어와 문헌:禪宗語言和文獻〉이 있는데, 필자가 번역중으로 조만간 출판될 예정이다. 그리고 선어록 어법 관련 저서로는 노열홍(盧烈紅)의 〈'고존숙어요' 대명사·조사 연구:'古尊宿語要' 代詞助詞硏究〉가 있으며, 이외에도 적지 않은 논문들이 있다. 대만(臺灣)의 경우, 단행본으로 구양의장(歐陽宜樟)의 〈벽암록의 언어 스타일 연구:碧巖錄的語言風格硏究〉가 있으며, 고웅현(高雄縣)에 위치하고 있는 불광산(佛光山)이 1994년에 〈불광대장경·선장:佛光大藏經·禪藏〉(모두 51권)을 완간하였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원문을 현대식 표점 부호(標點 符號)를 이용하여 출판한 것으로, 이후에 간행된 중국 대륙·일본 등지의 표점본(標點本)은 모두 이것을 참조할 정도이다.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특허상품
국내 최초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 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옴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판매가격표		
저고리 바지, 조끼	남 여	130,000
누비 (上,下)	남 여	180,000
방한복 (上)	남 여	130,000
바랑	大 中	30,000 25,0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56-8848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불치병 난치병을 예방·치료해주는/대체의학 천연자가 치료법
선도(禪道)체조천의(天醫)활인술전수

▶ 禪道비법 그약손은 천수관음의 조화를 일으켜 뇌공심법(雷公心法)으로 병마를 벼락같이 퇴치합니다.

◎ 禪道체조는 기공체조의 원조

때와 장소, 男女老少 막론하고 쉽게 익혀, 심신을 튼튼하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고저 함이요, 전신(全身)운동으로 초능력을 개발시킬 수있으며, 그 힘을 손바닥에 집중시켜 타골조사(打骨照射)하면서 처방하는것이니, 방사능 치료와 물리 치료의 복합적 효과를 볼 수있다.

· 신경쇠약 노이로제,불면증,당뇨,우울증,변비,고혈압,위장염, 좌골 신경통,만성기관지염,정력증강,조루증,피부미용, 대인공포증,암 억제 등의 치유력을 증강시킨다

◎ 천의(天醫) 활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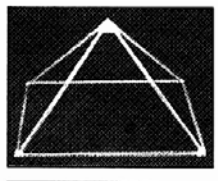
▶정신, 육신 긴장상태 - 심신이완
▶기혈이 막히면 질병이 생기므로, 경락을 소통시켜(元氣)를 기르며, 기혈을 원활히 하여 백병(百病)이 저절로 낫게 함이다.
▶천문(天門)이 열려 당신의 손이 기적의 약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신건강법 - 3개월 과정 ◦지도법사반 - 6개월 과정 ◦주 2회 개인별 전수	큰 불사 후 지병을 얻으신 스님 출장 상담 (전국 禪院 모집)

053-982-6778 / 011-813-3679
일신 성불 기도 도량 지 장 선 원

氣 파스 요법
氣가 통하면 통증도 사라집니다!!

◦ 氣 파스 요법
氣가 막힌 곳에 붙여 주면 시원해 지고 통증도 사라집니다.
▶ 허리용 set ₩20,000
▶ 무릎용 set ₩20,000



◦ 氣의 신비감 피라미드
(KBS2-TV 체험시리)
· 피라미드내에서 명상효과(박병운박사)
· 식물성장과 병중해 방지효과(민병성씨)
· 저혈압으로 수십년 고생하다 좋아짐 (주부 장영심씨)
· 뇌막염아기 건강이 호전(이호준씨)
₩ 350,000

▶ 순금도금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진 파워볼 ₩80,000

▶ 氣 밴드
· 무릎밴드₩18,000
· 머리밴드₩9,900
· 손목밴드₩8,800
· 팔목밴드₩12,000

은히란아 목걸이 ₩88,000

氣 목대 ₩39,000

※ 무릎, 허리, 다리, 신경통 등 불편하신 스님들에게는 찾아오시면 氣파스를 무료로 붙여드리고 우송도 해드립니다. (100분)
(우) 014092-06-011003 (김건순)

▣ 성인병(관절염, 무릎, 허리, 비염, 위장, 간)에 대한 상담
▣ 파스요법에 대한 안내 책자를 무료 우송해 드립니다.

韓國氣硏究院 02)455-6944·453-5851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희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랑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류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氣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튠먼트라는 비법이 있기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 능력자(레이키 요법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박희준)는 동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쓴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굴지의 어튠먼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치료 능력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1-제3단계, 3일정도 소요, 70만원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 02)720-5682/725-2311 팩스 :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